

# 오예진 입단... '텐텐양궁단' 담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2026 출정식·오예진 선수 입단식

### 오예진 “최고의 순간” 광주은행과 함께 빛나고 싶어” 젊고 역동적인 ‘원팀’... 여자실업팀 최강 전력 구축 안산, 오예진, 최미선 2026 국가대표 3차선발전 출격

광주은행 '텐텐(Ten Ten)양궁단'이 2026 시즌 합찬 출발을 알렸다.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9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김성은 감독과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텐텐양궁단' 2026 출정식과 함께 오예진 선수 입단식을 개최하고 새 시즌 합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은행 유니폼을 입은 오예진 선수의 입단 계약서 서명과 유니폼 전달식으로 막을 올렸다.

오예진은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광주은행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실업 선수라는 책임감으로 믿어주신 만큼 기량을 발휘해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울산스포츠과학고 재학 시절인 2021년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선발돼 '여고생 국가대표'로 불리며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키운 오예진은 김성은 감독과의 인연으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여대에 입학,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2022년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4년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포함한 3관왕, 2025년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 거리별 경기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과



입단 계약서에 사인을 한 오예진이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함께 여자대학부 '쌍두마차'로 이름을 높였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라이벌 임시현을 꺾고 3관왕에 오르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3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리머릭 유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 금메달, 2024년 태국마크를 달고 2024 WAA (아시아양궁연맹) 아시안컵 3차대회 개인전, 여자단체, 혼성단체 등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텐텐(Ten Ten) 양궁단' 2026년 출정식과 오예진 선수 입단식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선수단이 새 시즌 새각오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2022년 '10점 만점에 10점 명중'을 의미해 여자 실업 양궁단 '텐텐양궁단'을 창단했다.

김성은 감독의 지도 아래 최미선, 안산, 최예진, 광진영, 오예진 등이 활약하며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자치단체 운영팀을 제외하면 기업이 창단한 최초의 양궁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 2022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에 이어 오예진이 합류하며 여자 실업팀 최강 전력을 구축한 '텐텐양궁단'은 현재 진행 중인 2026 나고야·아이지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안산이 2

위, 오예진이 6위, 최미선이 16위를 기록하며 오예진은 16일부터 상위 20명이 겨루는 최종 3차 선발전을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출정식은 선수단 소개를 시작으로 감독 및 선수 각자 발표, 단기 전달식, 여자양궁 올림픽 3관왕인 기보배 광주여대 교수의 축사, 정일선 광주은행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은 텐텐양궁단 감독은 “현재 우리 선수 3명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더 강하고 단단한 원팀으로 거듭난 텐텐양궁단이 광주은행과 함께 다

시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 가족 모두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선수단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항상 함께하겠다. 승패를 떠나 진한 감동과 자부심으로 최고의 경기를 마음껏 펼쳐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견고한 활을 거머쥔 오예진은 “최고의 순간을 향한 새로운 도전, 값진 기회를 잡은 만큼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광주은행과 함께 빛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미선, 안산 선배를 비롯해 선수단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만큼 '익숙함속에서 오는 편안함'을 원동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아! 안세영... 36연승 무패행진 깨졌다



안세영이 지난 8일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 투어(슈퍼 1000) 전역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와 경기를 치르고 있다. <AP-연합뉴스>

### 맞대결 10연패 끄고 설욕한 왕즈이에 '딜미'... 전역오픈 2연패 불발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의 36연승 무패 행진이 '만년 2인자' 왕즈이(중국)의 설욕전 앞에 멈춰 섰다.

안세영은 8일 영국 버밍엄의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 투어(슈퍼 1000) 전역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 0-2(15-21 19-21)로 졌다.

배드민턴 전역오픈 2연패를 노리던 안세영의 결승 상대가 왕즈이로 확정됐을 때만 해도 안세영의 우승을 의심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최근 10차례의 맞대결에서 매번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던 세계랭킹 2위 왕즈이가 안세영을 넘어섰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자국 언론에서조차 '공안중'(안세영 공포증)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안세영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왕즈이였다.

하지만 이날의 왕즈이는 달랐다. 첫 게임 1-3에서 4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바꾼 왕즈이는 안세영의 끈질긴 추격에도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고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게임 역시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으나, 13-13에서 왕즈이가 3연속 득점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안세영은 막판 16-20에서 3점을 몰아치며 1

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마지막 대각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왕즈이는 승리가 확정되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다 이내 관중석을 향해 포효하며 10연패 사슬을 끊어낸 설욕의 순간을 만끽했다.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최초의 전역오픈 2연패를 꿈꿨던 안세영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이후 이어온 무패행진도 36연승에서 마감됐다.

안세영의 아쉬움은 남자복식 '황금 콤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가 달랐다.

남자 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는 결승에서 말레이시아의 아론 차아-소위(2위) 조를 상대로 2-1(18-21 21-12 21-19)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 둘은 1988년 박주봉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김문수 이후 한국 선수로는 40년 만에 남자복식 2연패에 성공했다.

한편 세계랭킹 4위에 빛나는 여자복식 듀오 백하나와 이소희(이상 인천국제공항)도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수-탄닝(1위) 조에 0-2(18-21 21-12)로 제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 신상우호, 올림픽 최종예선 출전권 확보

### 개최국 호주와 3대3... 골 득실 앞서 '조 1위로 아시안컵 8강'

조 1위로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최종예선 출전권을 확보한 채 이동 없이 하루 더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인 한국 대표팀은 지난 8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호주(FIFA 랭킹 15위)와 3-3으로 비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승 1무로 개최국 호주와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한국 +6, 호주 +5)에서 앞서 조 1위가 됐다.

한국은 오는 14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B, C조의 3위 중 한 팀과 8강전을 치른다. B조는 9일, C조는 10일 조별리그가 끝난다.

총 1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 2위와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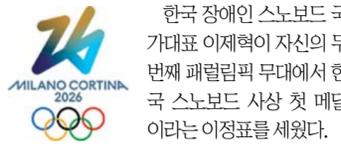


신상우 감독과 선수들 <EPA-연합뉴스>

오른다. 4강 진출 팀, 그리고 8강에서 탈락한 팀 중 플레이오프 스퀴리 팀을 더한 6개 팀은 브라질에서 열린 2027 FIFA 여자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8강 진출 팀에 주는 2028 LA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출전권은 확보했다. <연합뉴스>

# '막판 뒤집기' 이제혁, 3위로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



한국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제혁이 자신의 두 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한국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혁은 지난 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승에서 에마누엘레 페라토네르(이탈리아), 벤 투드호프(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노보드 종목 역사상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른 것은 이제혁이 처음이다. 본선 첫 판문인 준결선에서 조 1위로 준결승에 오른 이제혁은 8명이 두 도로 나뉘어 경쟁한 준결선에서도 투드호프의 뒤를 이어 2위로 결선행 티켓을 따냈다. 단 4명만이 출전한 결선에서 이제혁은 경기

후반부까지 4위로 밀려나 있었으나, 막판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썼다. 코스 안쪽을 파고 들던 이제혁은 3위로 달리던 알렉스 매시(캐나다)와 경기가 겹치며 충돌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제혁은 강한 집중력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텼고, 반면 충돌의 여파로 매시가 넘어지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동빙 쾌거'를 일궈내며 한국 스노보드의 속원을 둔 이제혁은 오는 14일 밴드그 슬라롬 경기에 출전해 다시 한번 설원 위 질주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 '역대 최대 규모' 구례 전남체전 성공 예감

### 14년 만에 구례 개최... 22개 시·군 7천191명 참가, 광양시 최다출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5회 전남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전남도체육회 9일 “지난 8일 제65회 전남체육대회 참가 신청 접수 마감 결과,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7천191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참가 규모는 지난해 제64회 대회(6천 950명)와 비교해 총 241명이 증가한 것으로, 전남체전에 대한 시·군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들 참가 선수단은 육상, 축구 등 23개 종목에서 시·군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시·군별 참가 인원을 보면, 광양시가 413명으로 가장 많고 해남군(381명), 순천시(379명), 여수시(369명), 고흥군(359명), 화순군(35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구례군에서 2012년 제51회 대회 이후 14년 만에 개최되는 전남체전으로 의미를 더한다.

전남 체육인들의 화합과 도민 스포츠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전은 전남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가장 큰 스포츠 축제”라며 “14년 만에 구례에서 개최되는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5회 전남체전은 오는 4월10일부터 13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22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치열한 시·군대항전 종합 순위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